

테러리즘과 언론의 관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9·11 테러와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테러에 관한 보도는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테러리스트에 의해 그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식이 당국이나 그 대변자들 사이에 팽배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홍보 수단이 되어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을 매도하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테러에 관한 보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명분을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럼에도 국가나 그 대변자들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홍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구실로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논지들을 제기하기 위해 본고는 테러리즘의 뉴스 가치와 홍보로서 테러리즘의 모습에 관해 논의하고, 테러 보도에 관한 몇몇 문제와 잘못된 인식을 검토하면서, 그 예증으로서 9·11 테러라는 미국에 대한 비국가 테러리즘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에 의한 국가 테러리즘에 관한 미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테러, 테러리즘, 홍보, 보도, 통제, 저널리즘

1. 문제의 제기

테러리즘과 언론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테러리즘은 흔히 뉴스 가치가 큰 사건이어서 언론은 테러를 크고 중요하게 보도하기 때문이다. 언론에

게 테러리즘은 값있는 상품인 것이다. 반대로 테러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는 테러리즘에 홍보라는 산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말해진다. 테러리스트들은 테러의 뉴스 가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테러에 대한 홍보의 수단으로 언론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테러리즘과 언론간에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말하자면, 테러리스트는 테러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언론은 테러리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리즘과 언론이 공존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지극히 부분적인 진실일 뿐이다. 오히려 테러에 관한 보도는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테러리스트에 의해 그들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인식 때문에 국가는 언론의 테러 보도를 통제하려 하고, 언론은 테러 보도에서 그런 국가의 통제에 순응하거나 자기검열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언론이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진정한 공생관계에 있는 존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국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비국가 테러리즘을 단속하고 국가 테러리즘을 행한다. 언론은 그런 국가와 보다 더 긴밀한 공생관계를 맺고 협력하면서 비국가 테러에 관해서는 아주 불리하고 국가 테러에 관해서는 아주 유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테러리즘에 관하여 당국이나 그 대변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매도하는 역할을 한다.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은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국가의 홍보 수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홍보 수단이 되어 테러리즘과 테러리스트들을 매도하고, 그에 대처하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테러에 관한 보도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명분이나 주장을 왜곡 없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에는 실패한다. 그럼에도 국가나 그 대변자들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는 그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

하자면,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들을 위한 홍보라는 주장은 그 주장을 구실로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논지들을 제기하기 위해 본고는 테러리즘의 뉴스 가치와 홍보로서 테러리즘의 모습을 논의하고, 테러리즘과 보도의 관계에 관한 몇몇 문제와 잘못된 인식을 검토하면서, 그 예중으로서 9·11 테러라는 미국에 대한 비국가 테러리즘과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에 의한 국가 테러리즘에 관한 미국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증적 분석이 아니라 이론적, 논리적 천착에 가깝다. 9·11 테러를 중심으로 테러리즘과 보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특히 뉴스 프레임 분석은 이미 한국에서도 몇 편이 발표되었다(유세경·김미라, 2002; 김창룡, 2001; 반현, 2001; 정재철, 2001).

테러리즘과 언론과의 관계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테러리즘 보도는 “전염 효과”를 갖거나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은 테러리즘 보도에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발휘해야 한다는 유형의 논의다. 극단적인 경우 이 유형은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언론 특히 방송의 당국에 대한 협조와 국가의 적극적인 보도 통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으로 쿠퍼(Cooper, 1977), 윌킨슨(Wilkinson, 1977), 오브라이언(O'Brien, 1979)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어떤 입장을 뚜렷이 드러내지 않은 채 양적, 질적 분석 등을 통해 테러리즘 보도의 특징 등을 나열하는 비교적 중립적인 논의다. 슈미드와 그라프(Schmied & Graaf, 1982)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테러리즘 보도에 관한 한국의 실증적 연구들도 이런 유형에 속한다. 셋째는 언론이 테러리즘 보도에서 국가통제나 자기검열에 의해서 테러리즘을 왜곡하고 국가 테러리즘을 정당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적 연구다. 허먼(Herman, 1982), 슬레진저·머독·엘리어트(Schlesinger, Murdock, & Elliott, 1983), 슬레진저(Schlesinger, 1991) 등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이 연구는 테러리즘 보도에 관한 논의의 세 번째 유형인 비판적 연구 전통에 입각해서 이들 여러 유형의 연구와 그 주장들을 검토하고 종합할 것이

다. 그러나 테러 보도가 이러저러한 특징이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넘어서 홍보로서 테러리즘의 실패와 테러리즘 보도에서 저널리즘의 실패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진정한 목적이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밝혀둘 것이 있다. 테러리즘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테러리즘 보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용납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명사회에서 정당방위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더구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폭력은 더욱 그러하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서 테러리즘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테러리즘과 언론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테러리즘과 언론간의 올바른 관계 특히 테러리즘에 관한 바람직한 보도란 어떤 것인가를 탐색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니 결코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글에서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테러리즘”은 일반적으로 비국가 집단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비국가 테러리즘”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작전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국가에 의한 테러리즘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테러의 뉴스 가치와 보도

테러리즘은 흔히 정치적 불만을 홍보할 목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 사전적으로 테러리즘은 “특별히 정치적 무기 또는 정책으로서, 위협하거나 복종시키기 위한, 공포심이나 폭력의 사용”으로 정의된다(Webster's New Twentieth Century Dictionary, 2nd ed.). 그것은 정부나 국민을 위협하여 요구를 받아들여도록 하기 위해, 흔히 폭파, 암살, 및 납치의 형태를 한 폭력을 통해 정치적 변화를 야기하려는 시도인 것이다(Miller, p. 230). 오늘날 테러리즘은 대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폭력에 호소하는 극적인 행위로 표출된다. 9·11 테러에서 잘 나타났듯이, 테러리즘

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치적 목적의 극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드라마적 요소, 정치성, 폭력성을 지닌 사건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요소들을 지닌 사건은 오늘날 언론에서 커다란 뉴스 가치를 갖는다.

뉴스 가치로 흔히 꼽히는 것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 가진 중요성, 흥미성, 영향력, 시의성, 근접성, 갈등, 현저성, 부정성, 의외성 등이다 (DeWerth-Pallmeyer, 1997, pp. 35-83; McQuail, 1994, pp. 270-271; MacDougal, 1982, pp. 114-120; Stevens, 1997/1999, p. 60). 이 가운데 흥미, 중요성, 영향력은 언론인들과 언론사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핵심적인 뉴스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디웜스팔마이어(DeWerth-Pallmeyer, 1997, p. 58)는 이 세 개의 뉴스 가치가 언론사에서 부여된 서열로 볼 때 뉴스 가치 가운데 우두머리의 지위를 지닌 가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이들을 “우두머리 뉴스 가치”(master news values)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흥미(interest)는 수용자가 원하는 뉴스를 제공한다는 시장적 정향 즉 상업성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뉴스 가치다. 흥미는 언론인이나 언론사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중시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두머리 가치라 할 수 있다. 시의성이나 근접성과 같이 다른 뉴스 가치들은 흔히 이 흥미에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중요성(importance)은 수용자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로 하는 뉴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언론인들의 직업적인 가치 지향 즉 언론의 공익성과 가장 부합하는 뉴스 가치다. 중요성은 그 자체로서 우두머리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향력(impact)은 뉴스에 대한 시장적 가치 정향과 직업적 가치 정향 사이의 중개적 가치로 기능한다. 언론인이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흔히 중요하기도 하고 흥미도 있는 뉴스를 동시에 전하는 것이 된다. 언론인은 영향력을 흥미와 중요성을 연계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한다. 즉 “수용자들에게 그들이 알아야만 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직업적 가치와 수용자들이 알고자 원하는 것을 전하려는 시장적 가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는 것이다(DeWerth-Pallmeyer,

1997, p. 60).

이제 현대 사회의 테러 특히 9·11 테러와 “테러와의 전쟁”의 뉴스 가치를 분석해보자.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테러리즘은 정치적 목적의 극적인 폭력이라는 점에서 뉴스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인에게 9·11 테러는 그 규모와 의외성 그리고 근접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테러였다. 그 테러는 세 가지 우두머리 뉴스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다. 9·11 테러는 무엇보다 그 극적인 폭력성으로 인하여 수용자의 커다란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했다. 그것은 언론의 상업적 관점에서 볼 때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또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한 사건이기도 했다. 말하자면, 그것은 언론인의 직업적 관점에서 볼 때도 수용자들이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은 또 그 피해의 규모와 그것이 행해진 과격성과 의외성이라는 측면에서 수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9·11 테러의 경우에는 그 사상자만 3천 명이 가까웠고, 미국 자본주의 상징인 세계무역회관 건물 두 동을 완전히 붕괴시켰고, 미국 군사력의 상징인 국방성 건물을 반파시켰다. 이런 인명 피해와 건물의 파괴 그 자체로도 엄청난 영향이지만 그 인적, 물적 피해는 미국인들이 심성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테러와의 전쟁” 또한 인간사 최대의 갈등이라 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한 국가의 정권의 운명이 걸린 정치·군사적 싸움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결과한 인명피해와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체제의 변화라는 점에서, 그 흥미성, 중요성, 영향력이 아주 큰 사건이었다. 본래 “아프가니스타니즘”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일에 관한 뉴스 즉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먼 곳의 뉴스를 보도하는 행위를 지칭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거리성을 뛰어넘어 우두머리 뉴스 가치를 모두 갖춘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9·11 테러나 “테러와의 전쟁”이나 모두 언론의 상업성을 위해서도, 공익성을 위해서도 많은 시간과 지면을 할애하여 크고 자세하게 다루어야 하는 사건이었다. 이들 두 사건을 포함한 테러리즘에 관하여 언론은 자유롭게 보도해야 할 상업적, 공익적 명분이 있고 따라서 자유롭게 보도하려 한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그것을 통해 극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는 측과 그런 선전 효과를 우려하는 측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보도는 언제나 많은 시비를 야기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언론은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도하되 그 사건에 개입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밀러(Miller, 1989, p. 231)의 표현처럼, 언론은 뉴스를 보도하되 그 뉴스의 일부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테러 보도를 둘러싸고 그 테러를 정치 선전의 기회를 삼으려는 테러리스트의 의도와 그런 정치 선전을 막으려는 국가의 요구나 애국주의적 정서가 상충하기 때문이다. 이 양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언론은 테러리즘의 보도가 테러리스트를 고무시키지도 않고, 국가나 애국주의에 의해서 위축되지도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모색은 정부나 기타 외부의 간섭이 없이 언론 스스로 행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언론은 테러에 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국민 정서에 의해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한다. 이제 그 이유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3. 테러리즘과 홍보전

오늘날의 테러리즘이 노리는 것은 폭력 그 자체나 그 희생자가 아니라 폭력에 수반된 정치적 메시지의 전파다. 말하자면, 테러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을 통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그 정치적 메시지를 전파하려는 홍보를 필요로 한다. 팔레츠와 슈미드(Paletz & Schmid, 1992, p. 2)의 지적처럼, “테러리스트는 자신들의 심리적 목표를 초래하기 위해 홍보를 구한다.…… 그들은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신들의 운동의 힘을 과시하고, 공중의 동정을 얻고,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는 등의 여러 심리적 효과를 생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이러한 목표에 성공하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홍보해야 한다.”

오늘날 홍보 수단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대중매체다. 따라서 테러가 어떤 효과를 노리면 노릴수록, 즉 테러의 목적이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것일수록, 그 테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어야만 한다.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매체에 보도될 때 비로소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매체에 보도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 때문에 슈미드와 드 그라프(Schmid & de Graaf, 1982, p. 217)는 테러리즘은 무언가 전할 메시지가 있지만 대중매체에 접근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뉴스 가치가 있는 극적인 사건을 연출함으로써 매체의 지면이나 시간을 얻으려는 매체 전략으로 정의한다. 맥네어(McNair, 1998, p. 157)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테러리스트 행위는 궁극적인 의사사건(pseudo-event)”이라며 그것은 뉴스 매체에서 인정받고 보도되지 않으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무의미한 행위라고 단정한다.

이렇게 보도되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오늘날 테러 조직은 다른 정치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체관리 체계를 발전시켰고,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비디오 제공, 정보 누출, 기관지 발행 등과 같이 PR 전문가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을 점점 더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McNair, 1995, p. 155).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 카에다 조직도 알 자지라 방송과의 단독 회견을 통해 또는 알 자지라에게 비디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주장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매체관리술을 보이기도 했다. CNN은 알 자지라로부터 넘겨받은 빈 라덴의 녹음 메시지를 그대로 방송하기도 했다. 뉴스 위크(2001.10.15, p. 36)에 의하면, 알 카에다는 산하에 자금 위원회, 종교·법 위원회, 군사 위원회와 함께 매체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매체 위원회는 이 조직의 테러 활동을 지지하는 정보의 유포를 담당해왔다고 한다.

이처럼 테러리즘은 홍보를 구하고 테러리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뜻하지 않게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슈미드와 드 그라프(Schmid & de Graaf, 1982, p. 217)의 지적처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폭력을 사용한 경우 그 수단이 그 목적에서 공중의 관심을 돌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테러리즘에서 폭력만을 볼 뿐 커뮤니케이션을 보

지 않는다. 게다가 그 홍보라는 것도 테러리스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도하는 언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더구나 단순히 보도되는 것만으로 홍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홍보란 본래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흔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홍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는 테러리즘의 명분을 비하하고 왜곡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과거 미국 밖에서 미국인이나 미국의 시설물에 행해졌던 무수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미국 안에서 행해진 저 엄청난 9·11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이 아랍 과격파와 테러리스트의 명분을 제대로 전달했다는 증거는 없다. 계속 테러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테러리즘에 대처하는 국가의 홍보활동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다. 국가는 비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대책에서 그리고 국가 테러리즘에서 비국가 테러리스트의 홍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다량의 질 높은 홍보를 언론을 이용하여 행한다. 미국의 언론들은 1, 2 차 세계대전에서 정부 선전의 냄새가 나는 전쟁 뉴스들을 주로 보도했고, 할리우드의 역량 있는 영화제작자들이 전쟁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대거 고용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후 언론들이 정부정보에 의존하는 보도관행을 반성하고, 월남전에서는 최전선을 직접 취재하여 전쟁의 참혹상을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였다. 이러한 적나라한 보도 때문에 반전 여론이 높아져 월남전에서 패했다고 판단한 미국 정부는 그 이후의 전쟁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는 한편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예컨대, 미 국방부는 언론의 전장 접근을 불허하는 대신 주로 무해하거나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만을 언론에 제공하는 등으로 언론을 관리해왔다. 1991년의 걸프전에서 언론들은 이라크 전선에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고 따라서 민간인 사상자들이나 공격을 받은 지역의 피해에 대해 보도하지 못했다. 미국인들 아니 세계인들이 안방에서 본 걸프전은 비디오게임 같은 것이었다. 그 전쟁은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그 전쟁에 대해서 1, 2차 세계대전에서와 같이 도

덕적 승리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호의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었다(Straus, 2001. Dec. 10).

미 정부의 홍보활동과 언론관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심했다. 미 국방부는 아프간 작전지역의 위성사진을 모두 매입해서 언론사들이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언론인들이 병사나 조종사의 작전에 동반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작전에서 돌아온 경우에 면담하지 못하게 했다. 2001년 10월의 한 기자회견에서 전쟁보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냐는 질문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때로 진실은 너무도 중요해서 거짓이라는 보디가드에 의해 동반되어야 한다”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의 조작정보와 관련된 윈스턴 처칠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다(Straus, 2001. Dec. 10).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정적인 뉴스를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백악관 공보처는 헐리우드 영화사 간부와 제작진들을 워싱턴에 불러모아 2차대전 때 했던 것처럼 미국인의 전쟁의지를 북돋우는 대국민 선무방송까지 논의하게 했다.

부시 행정부는 대내 홍보뿐만 아니라 대외 홍보, 특히 대 이슬람권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이런 홍보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부는 워싱턴 디시에 있는 홍보대행업체인 렌든 그룹(the Rendon Group)을 고용하여 세계의 수용자들에게 미국의 군사공격의 설명을 돕도록 했다. 미 행정부는 또 중동의 기자들에게 전쟁 뉴스를 유포하기 위해 워싱턴, 런던, 이슬라바마드에 ‘합동정보 센터’를 개설했다.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안보담당 보좌관 콘돌리사 라이스는 알 자지라 방송에 출현하여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Straus, 2001. Dec. 10). 이처럼 테러리스트의 홍보는 산발적이고 언론의 협조를 얻지도 못하는 반면, 그에 대처하는 국가의 홍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언론의 협조 속에서 행해진다.

이렇게 테러 보도가 홍보로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언론은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 되기보다는 그에 대처하는 국가의 홍보수단이 된다. 이런 점에서 언론은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기보다 국가를 비롯한 외부의 통제 기도를 더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테러 보도가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이라는 인식과 그에 기초한 테러 보도에 관한 부정적 태도 그리고 그 부정적 태도의 반대 입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4. 테러리즘 보도에 대한 논란

테러리즘이 매체에 보도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매체의 시선을 끌 수 있을 만큼 자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테러리즘은 잔학한 폭력을 통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장관을 방불케 하는 테러리스트 조직의 폭력적인 행위는 어쩌면 극적인 것에 인이 박힌 저널리즘을 위한 하나의 연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슈미드와 드 그라프(Schmid & de Graaf, 1982, p. 217)의 지적처럼, “서방의 매체는 비정상적이고, 비상하고, 위험하고, 새롭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사건이나 뉴스 만들기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뉴스 만들기활용에서(매체에) 일상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집단은 접근을 얻기 위해 이러한 뉴스 가치 체계의 특성을 활용한다.” 이런 점에서 현대의 테러리즘은 그런 극적인 행위를 중요한 뉴스로 취급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리는 저널리즘 문화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McNair, 1998, p. 157).

잔학한 폭력에 의한 극적 장면의 연출은 자신들의 테러 행위가 인쇄 매체에 보도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ана키스트들의 테러 이래로 테러리즘의 면면한 전통이기도 하다. 예컨대, 1898년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요셉 황제의 황녀였던 엘리자베트를 칼로 찔러 살해한 이탈리아 출신의 젊은 ана키스트 루체니는 자기 동료에게, “아, 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 그러나 그 사람은 중요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기 때문이다(Shrivastava, 1996, p. 226에서 재인용)”라고 말했다고 한다. ана키스트들은 인쇄 매체를 충분히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이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홍보를 필요로 하고 구하는 정치가나 광고인에게 그런 것처럼, 19세기 후반의 아나키스트 시절 이래로 테러리스트에게 매체는 그들의 거래를 위한 도구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매체는 테러리스트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으며, 만일 매체가 없었더라면 테러리스트가 그것을 발명했어야 할 정도의 것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오늘날 테러리즘은 인쇄 매체만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비롯한 전자 매체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날 텔레비전이 테러리즘의 가장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세련된 텔레비전 활용을 기술하기 위해 테러리즘의 “테러”(terror)와 텔레비전의 “비전”(vision)을 결합한 “테러비전”(terrovision)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다.

“테러비전”의 전형은 9·11 테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동시다발의 테러는 사실은 수천 명의 죄 없는 목숨을 앗아간 아비규환의 대참사였다. 그런데 이 테러 특히 무역센터의 쌍둥이 건물에 대한 테러는 두 개의 거대한 건물이 납치 여객기에 부딪쳐 검붉은 화염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하나의 장관이기도 했다. 그 사건이 아무리 잔혹하고 비극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극적인 장관인 만큼 매체들 특히 텔레비전이 그 장면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저널리즘 문화인 것이다.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의 주범이라면 그는 9·11 테러에 의한 빌딩의 붕괴가 반복해서 방영될 것이라는 “테러비전”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빌딩의 물리적 붕괴가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상징이 붕괴되는 것을 보는 심리적 충격을 노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테러리스트로서 미국에 위협을 가했기뿐만 아니라 아주 사나운 선전가이며 가장 영리한 매체 조작자로서 미국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한 적임을 입증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Straus, 2001. Dec. 10).

이 때문에 테러리즘에 대한 언론의 보도 그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논자들이 많다. 이들 논자들은 테러리즘을 홍보를 위한 하나의 극적인 행위로 본다. 그들에 의하면, 테러리스트는 프라임 타임, 자신의 행위의 강도를 높여

야 할 필요성, 매체를 조작하고 대중에 도달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은 홍보맨 또는 쇼맨이며, 우리 시대의 초오라카들(super-entertainers)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테러리스트들은 폭력을 안무하고, 테러리즘은 연극이라는 것이다. 슈미드와 드 그라프(Schmid & de Graaf, 1982, p. 76)에 의하면, 테러리즘은 “연극이다. 그것은 범죄이고 정치이다. 실제적인 생사가 걸린 장관, 고단수의 정치, 저열한 범죄라는 이 3중 혼합이 서구 매체가 보도하도록 조건화된 것에 너무나 잘 맞아서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보도하지 않고는 못배긴다.”

테러리즘의 보도에 관한 이런 부정적 입장은 국가와 그 대변자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매체 자신에 의해서도 제시된다. 『더 워싱턴 포스트』(1975. 11. 21)는 “우리 서구 언론들은 아직 국제적 테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들이 그것에 관해 좀더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 쓰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아주 신중하게 쓸 것이다”고 말했다. 『더 타임즈』(1985. 7. 24)는 베이루트 하이재킹에 관한 미국 텔레비전의 보도가 수치였다고 “어떤 사건에 대한 카메라의 존재 자체가 그 사건을 조건화하고 왜곡하여 세부 사항들이 객관적인 현실성을 잃고 대신 미디어 이벤트로 되어버린다”며 사뭇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1991년의 페르시아만 전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2001년의 “테러와의 전쟁” 때도 적전에서 적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그대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CNN은 경쟁사들에 의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Rutenberg & Carter, 2001. Oct. 22).

이처럼 테러리즘이 언론의 홍보를 구한다는 주장은 테러리즘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테러리스트의 정치적 목적을 홍보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테러리즘에 대한 언론의 보도, 특히 테러리스트와의 면담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지나치게 일방적인 주장이며 그나마 잘못된 주장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자제되기보다는 고무되어야 한다. 우선 테러리즘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우두머리 뉴스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공익적으로도 마땅히 보도되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언론이 테러

리즘을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으면,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테러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까지 그 활동을 격화시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비롯하여 이슬람권의 테러리즘에 대해 충분히 보도하고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면, 9·11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언론은 테러와 관련된 사안을 가감 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 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사의 회장이었던 캐서린 그레이엄은 1985년 한 연설에서 테러리즘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충분하고 완벽한 보도를 선호한다”면서 테러리스트 사건은 공중으로부터 숨기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테러리즘이 홍보되지 않는다고 중단될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홍보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테러리스트들이 살육의 양만 늘릴 것이라는 가외의 두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Shrivastava, 1996, p. 228). CNN의 가감 없는 보도가 적을 돕는다는 비난에 대해, CNN의 창립 사장 리스 손펠드는 “CNN은 이라크와 같은 나라를 포함해서 필름을 제공하는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아 설명 그것이 명백한 선전물이라 할 지라도 보내진 그대로 방송할 것이다. 그것은 이들 나라들이 많은 미국 수용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나라에 가치 있는 어떤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테러 보도에 관한 찬반론을 살펴보았다. 이제 테러 보도가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테러 보도의 통제 논리와 통제의 실상을 이해한다면 테러 보도가 테러리스트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염려하기보다는 국가나 애국주의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더 염려해야 하는 이유도 더 분명해진다.

5. 테러리즘 보도와 그 통제

테러리즘이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이고 테러리스트가 정치적 메시지를 전

달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매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흔히 매체가 테러리스트의 행위를 보도함에 있어서 테러리스트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체로 정부나 그 대변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예컨대,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1983년 홍보를 테러리스트의 “음식”으로 비유하면서 테러리스트에게 “홍보의 산소”(the oxygen of publicity)가 거부되어야 함을 암시했다(Shrivastava, 1996, p. 227). 언론인들이 테러리스트에게 “홍보의 산소”를 제공하는 것 즉 테러 행위의 보도는 부정적인 것이든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주류의 정치적 과정에 해로운 것이라는 주장이다.

영국 방송으로 하여금 북아일랜드 테러리스트나 그 동조자들의 목소리를 사용할 수 없게 한 1988년의 정부의 법적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영국 내무상 더글러스 허드는 좀 더 세련된 주장을 폈다. 그에 의하면, 테러리스트들과의 인터뷰는 그 동조자들에게 폭력을 정당화하고 영예롭게 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테러리스트들에게 손쉬운 강단을 제공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접근은 테러리스트와 그 동조자들에게 “권위의 분위기와 외양”을 준다. 이것은 공동체에 테러리스트 행위의 공포의 물결을 퍼지게 한다. 테러리스트의 행위는 공포를 조성하고 직접 방송은 그것을 퍼뜨린다(Wilson, 1996, p. 124). 이러한 주장은 당국에 의해 테러리즘을 위한 어떤 형태의 홍보에도 반대하는 논리로 채택될 수 있다.

이처럼 테러리즘과 같은 정치적 폭력을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드라마로 보는 입장에서 매체의 보도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런 입장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매체들은 폭력과 드라마를 강조하는 뉴스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슬레진저(Schlesinger, 1991, p. 22)는, 이런 주장은 현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성격과 그 매체의 운영에 관해 아주 의심스런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 가정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는 아주 취약하고 뉴스를 검열하지 않으며, 그 매체는 테러리스트 선전의 자발적인 희생자로서 그들의 선전의 공개적인

통로로 기능하며, 매체의 보도는 테러리즘을 조장시키는 “전염 효과”(contagion effect)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과학적 증거도 없는 이러한 가정은 테러 보도를 통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Picard, 1990). 게다가, 슬레진저(Schlesinger, 1991, p. 22)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자유 민주주의 내에서 “강성 국가”(strong state), “권위주의적 국가주의”(authoritarian statism), “국민 안보 국가”(national security state) 등의 것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방향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테러에 취약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정은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반테러 입법과 내부 방어를 위한 군경의 협력의 발전, 형사법과 정치법의 재판에서 피소자 인권의 약화, 전국민을 감시하는 첨단기술의 발전, 국가 ‘전복’ 범주의 확대, 노조 및 정치 집회의 권리에 대한 제약, 민간 사찰에서 억압적 기술의 사용 등이 이러한 변화를 증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논자들은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의 이런 변화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그저 그것이 테러리즘에 취약하다는 주장만을 하면서 매체가 그 취약성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그 대변자, 매체 자신의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서방에서 매체의 보도에 대한 성공적인 통제는 법적 강제력이 없이도 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 정부 대변인이 밝힌 바 있듯이, 매체는 테러리스트 대책 기구에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따라서 국가는 신문과 방송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Schlesinger, 1991, p. 24). 서방의 매체는 그런 국가의 협조 요청에 별로 저항하지 않고 옹호는 전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테러 대책에서 정보 정책은 상황의 매 협의의 순간마다 주요 요소이고, 정보의 중앙화한 수로화를 포함하여 매체와 국가간의 협조의 원칙이 발전되었다. 언론자유를 주창하는 서방의 언론은 테러리즘 보도에서 별 저항 없이 국가의 협조요청이나 통제에 순응하고 자기 검열을 행하는 것이다.

미국 언론도 9·11 테러 이후 보도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방송들은 제4부로서보다는 군의 한 부서처럼 행

동했다. 심지어 CBS의 앵커 덴 래더는 “만일 부시가 어디든 내가 있기를 바란다면, 그곳을 말하기만 하라”라고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CNN의 회장 월터 아이삭슨은 보도 부서원들에게 죽은 아프간인들의 모습을 제한하고 그들의 사망을 세계 무역 센터에서의 죽음으로 정당화하라고 명령했다. 신문 편집자들은 비애국적으로 보일까 봐 아프간인 사망사진을 제1면에 게재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Straus, 2002. Dec. 10). 그래서 『타임』의 파리 지국장을 지낸 토머스 생크턴은 『르 몽드』(2001. 11. 30)에 대한 기고문에서 “9·11 테러 이후 분노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국 언론은 정부와 대중 여론, 언론계 스스로의 애국주의적 대응 압력에 직면했다”며 “결국 미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가 정보통제와 일종의 자기검열 체제에 빠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조선일보』 2001. 12. 1, p.12).

미국은 전쟁이나 외국 침공과 같은 미국의 국가 폭력과 관련하여 여러 모로 언론을 통제한다. 특히 그레나다 침공 때부터 그 통제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제 미 종군 기자들은 대체로 군작전의 현장과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에 접근할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종군기자들은 현장의 병사들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국방성 취재기자들은 군사작전에 관해서 대변인을 통해 국방성에 의해 조율된 일일 정보만을 제공받았다고 한다(Hickey, 2002. Jan./Feb.). 미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정보의 통제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비판을 봉쇄하려 하였다. 그런 전략의 하나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을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과 동일시하는 논법이다. 예컨대, 법무장관 애쉬크로프트는 “평화애호가를 자유상실이라는 유령으로써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당신의 전술이 테러리스트를 돕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다”고 말했다(Keefe, 2001. Dec. 10).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행한 인권제한적인 조치를 비판하는 행위가 테러리스트를 돕는 것이라는 이런 주장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미 정부의 전략이 주효하여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워싱턴의 민간 언론감시

기관인 <프로젝트 엘설런스 인 저널리즘(Project Excellence in Journalism)>은 “테러와의 전쟁” 보도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보도통제는 “걸프전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테러 사건 보도는 편잡았지만 아프간내 ‘테러와의 전쟁’ 보도에서는 언론이 국방부와 국무부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무력행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언론은 왜 이런 사태가 초래됐는지 등의 문제의 본질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소리 등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한겨레신문』, 2001. 12. 12, 13쪽).

테러 보도에 대한 통제의 논리와 그 실상을 살펴보았다. 테러 보도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그에 대한 언론의 순응은 테러 보도가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또한 테러 보도에서 언론은 국가를 더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언론은 테러리즘을 어떻게 보도할까. 테러 보도의 구체적인 방식을 살펴보기로 하자.

6. 테러리즘 보도의 방식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테러가 현대의 뉴스 생산의 요건에 잘 들어맞는 데다가 테러리스트 조직은 나름대로 홍보 기법들을 구사하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조직은 적어도 테러 행위 그 자체에 대한 홍보에서는 때때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이 홍보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데서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테러리스트는 홍보 즉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약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의명분의 추구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언론은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검열에 의해서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언론 자신의 지지를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테러가 발생하면, 최초에는 테러리스트의 홍보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가 그 테러의 일차적 정보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초기 순간이

지나면 그 테러에 관한 언론의 중요한 정보원은 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그 적인 정부와 그 대책반이 되기 때문이다. 슈미드와 그라프(1982, p. 98)도 지적했듯이, “테러리스트의 뉴스 관리자는 정보원으로서 때로 매체가 그들의 행위를 보도하는 방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의 반대자 즉 정부와 그 안전 부대가 매체의 주요 정보원이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정부가 그 사고에 대한 주도권이 없지만 그 최초의 순간이 지나면 곧 정부는 그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나 수습의 책임을 맡고 나서기 때문에 언론은 그 사고에 관한 후속 보도에서는 정부의 발표 등 정부의 정보 관리에 의존하게 된다. 몰로치와 레스터(Molotch & Lester, 1974)가 말한 이른바 “일상화”(routinization) 또는 “정상화”(normalization)의 과정이 테러리즘 보도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더구나 언론은 대체로 어떤 사건의 행위와 그 결과의 측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보도하지만 그 사건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파업보도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테러 보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수용자들에게 폭탄이 터지거나, 비행기가 납치되거나, 건물이 불타거나 무너지는 장면이나 그 피해는 많이 보여주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맥락이나 또는 그 원인 같은 것은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설령 그런 것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는 제공하지 않는다. 언론은 테러리스트로 하여금 대중의 주목을 끄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그들의 명분 즉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는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명분을 왜곡하거나 그들은 명분을 가질 수도 없는 미치광이들로 묘사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맥네어(McNair, 1998, p. 156)의 지적처럼, 많은 테러리즘 보도는 테러리스트에게는 자기패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9·11 테러 보도에서도 관찰되었다. 미국의 언론들은 정부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의 주모자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 카에다 조직을 지목했으나 그들이 왜 그런 테러를 자행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적인 맥락은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빈 라덴과 알 카에다 조직원

그리고 9·11 테러 감행자들을 광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묘사했다. 그 테러의 원인을 조망한 경우에는 아랍인들이나 무슬림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극히 미국적인 입장에서 제시되었을 뿐이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쫓겨난 팔레스타인 난민,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국가 테러리즘,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 중동에서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대신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의 서방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이슬람권의 정치적, 경제적 후진과 실업 그리고 그로 인한 이슬람권 젊은이들의 불만과 과격화 등만이 부각되어 제시되었다.

반면에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보도는 비국가 테러리즘과는 정반대라 할 수 있다. 국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언론은 정부의 입장에 서서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주로 의존한다. 그렇게 해서 언론은 국가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보호하는 보도를 하게 된다. 허먼(Herman, 1982, pp. 139-199)은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이 관련된, 이른바 우방국들의 국가 테러리즘이라는 진정한 테러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보도 방식을 취하는가를 분석했다. 그 방식들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테러리즘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국가 테러에서 눈을 돌리기” ② 국가 테러에 관한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그 정보에 의존하는 “정부를 적절하고 진실한 정보원으로 의존하기” ③ 국가 테러의 보도에서 적절한 맥락을 제공하지 않아 그 사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맥락 없애버리기” ④ 국가 테러에 관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에 맞먹는 좌익의 비국가 테러도 있는 것처럼 또는 국가에 중간 입장에서 좌우익의 테러를 통제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기계적 균형 맞추기” ⑤ “국가가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의 중간에서 있는 중도적인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 ⑥ 테러 국가의 부정적인 면을 감추고 긍정적인 면을 부풀리는 “테러 국가의 밝은 면을 강조하기” ⑦ 테러 국가에 관한 보도에서 그 나라의 다수 민중의 시각이 아닌 소수 엘리트의 시각에 의존하는 “엘리트의 시각으로 보기” ⑧ 미국이 개입한 국가 테러에서 미국의 관련성이나 책임성을 호도하는 “미국을 초연한 제3자

로 제시하기” 등.

이러한 보도방식은 1991년의 페르시아 만 전쟁과 그밖에 미국이 주도한 최근의 많은 전쟁이나 국가 테러에 대한 보도에서도 대체로 그대로 적용되었다. 2001년의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보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정부의 통제 속에 국방부와 국무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주로 의존하면서 미국의 국가 테러에 의한 참상에서 눈을 돌렸다. 특히 텔레비전은 폭격을 단지 멋있는 비디오게임처럼 제시했다. 미 주류 언론들은 국방부의 통제와 자체의 애국주의적 판단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의 민간인 사상자나 미국의 폭격에 의해 파괴된 민간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행된 보고서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아프가니스탄은 야만적인 공습을 받았고, 10월 7일 이후 하루 평균 60-65명의 민간인들이 살해되었으며, 11월 23일까지 적어도 3,006명이 죽었다고 한다(Herold, 2001. Dec.). 미국 언론들은 이런 참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리고 미국 언론에 의존하는 나라들에서 그 참상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7. 맺는 말: 테러리즘과 저널리즘의 실패

9·11 테러를 중심으로 대미 테러리즘과 미국 언론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고찰의 결과로 우리는 대미 테러리즘과 미국 언론과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결론은 다른 나라에 대한 테러리즘과 그 언론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테러리즘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홍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체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테러리즘은 초기에 언론의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언론을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애국주의에 의하여 테러리스트를 극단적이고 광적이고 따라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부각시킨다. 그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점점 더 고립되고 무자비한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될 뿐이다. 테러리즘에 대한 보도가 테러리스트에게 홍보 수단이 된다는 주장은 테러리즘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고, 테러리스트들을 비하하고, 결국 테러리스트의 정치적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왜곡하는데 이용되는 구실로 작용할 뿐이다.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테러리스트의 명분을 부각시키거나 하는 등으로 테러리스트가 원하는 보도를 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테러리즘은 결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테러리스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테러를 수단으로 택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없다. 테러리즘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메시지의 전파 즉 홍보를 목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테러리즘은 그 대상에게 공포와 충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의 명분을 알리고 그에 대해 이해를 얻는데는 실패하며 오히려 제거되어야 할 광신도나 극단주의자로 낙인찍혀 더 큰 피해를 되돌려 받는 웅징만을 받게 될 뿐이다.

다른 한편 테러리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널리즘의 실패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선, 테러리즘 그 자체가 저널리즘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 대중매체가 평소에 절망하는 소수자들의 정당한 이해관계에 무관심하다가 그들이 폭력에 호소하면 대대적인 보도를 한다. 이는 저널리즘이 평소에 이들 억압받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언론이 평소에 그들 소외된 소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었다라면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렇게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테러라는 극적이고 파격한 폭력 수단을 연출했을 때에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오히려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것이며 결국 저널리즘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다. 저널리즘이 테러리즘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소수자들의 불만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불만을 보도해준다면 테러리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저널리즘의 두 번째 실패는 테러가 행해진 이후의 보도에서 나타난다.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사후 보도에서 그 원인보다는 그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언론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테

러리즘이 일어난 역사적 배경, 테러리스트들이 전하고자 하는 억압받고 소외된 집단의 처지, 그들의 주장 등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히려 테러의 파괴적인 결과를 주로 부각시키면서 테러리스트들을 과격하고 광신적인 폭력집단으로만 매도한다. 그래서 테러에 관한 사후 보도에서 테러리즘에 관한 근본적이고 진정한 해결책은 모색되지 않고,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이 대표하는 억압받는 소수는 국가 폭력으로 옹정되어야 한다는 일시적, 대응적 해결책이 모색된다. 이렇게 해서 테러리즘을 둘러싼 보복과 옹정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언론은 국가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보다 더 비판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테러를 옹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전쟁이란 미명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 테러리즘은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수반하며 그 폭력의 피해가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런 국가 테러리즘은 테러리즘을 발본색원하기보다는 흔히 테러리즘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언론은 국가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에서 국가의 통제와 애국주의적 압력을 당연시하는 자세는 불식해야 한다. 양식 있는 언론이라면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가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평소에 억압받고 소외된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또한 그런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불만을 구제하고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평소에 불만을 가진 약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불만을 상당량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보도를 통해 그들의 불만을 구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다가 그들이 절망한 나머지 과격한 테러를 행하면 크게 보도하는 행위는 테러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한 보도는 그 파괴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테러리스트들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정한 테러를 통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게 된다.

테러리즘이 평소의 저널리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테러에 관한 보도는 그 테러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테러리스트들이 대변하는 약자들의 처지와 주장 등에 관한 설명도 제시해야 한다. 테러리즘 보도가 테러와 테러리스트들을 나쁜 빛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지만 테러리스트들을 옹정하고 제거해야 할 광신적인 극단주의자로 매도하는 부정적인 것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테러리즘에 관한 보도는 불만세력의 불만을 구제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테러리즘 보도는 테러리즘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건설적인 보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창룡 (2001.12.20). 9·11테러와 전쟁보도의 문제점: 국내외신문 보도 비교분석. 『테러와 전쟁보도 연구』, (한국언론재단 연구서 2001-15). 서울: 한국언론재단.
- 반현 (2001).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뉴욕 테러사건의 국내 TV 뉴스보도 사례.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 유세경·김미라 (2002 봄). 미국, 한국, 중국 일간지의 '9·11 테러' 뉴스보도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8호, 165-198.
- 이승선 (2002. 2. 28). 이슬람 국민 반미감정 위험수위 넘어: '반미 여론' 美갤럽 9개국 여론조사 결과. [On-line] Available: <http://www.pressian.com>.
- 정재철 (2001). 미국 대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9시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13권, 257-278.
- Stephens, M. (1997). *A history of news*. 이광재 이인희 옮김 (1999). 『뉴스의 역사』. 서울: 황금가지.
- Cooper, H. (1977). Terrorism and the media. In Y. Alexander & S. Finger (Eds.), *Terrorism: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pp. 141-146). New York: John Jay Press.
- DeWerth-Pallmeyer, Dwight (1997). *The audience in the new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Herold, Marc W. (2001, December). Who will count the dead? U.S. media fail to report civilian casualties in Afghanistan. [On-line] Available : //www.media-Alliance.org.
- Herman, E. S. (1982). *The real terror network: Terrorism in fact and propaganda*. Boston: South End Press.
- Hickey, N. (2002, Jan./Feb.). Access denied: The Pentagon's war reporting rules are the toughest ever. *Columbia Journalism Review*.
- Keefer, Bryan (2001, December 10). Closing down debate: Ashcroft's attack on dissent. AterNet.org.
- Kelly, M., & Mitchell, T. (1984). Transnational terrorism and the Western elite press. In D. Graber (Ed.), *Media power in politics* (pp. 282-289).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McNair, B. (1998). *The sociology of journalism*. London: Arnold.
- McNair (1995).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communication*. London: Routledge.
- MacDougal, C. (1982). *Interpretive reporting (8th ed)*. New York: MacMillan.
- McQuail, D. (1994).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3rd ed)*. London: Sage.
- Miller, A. (1989). Terrorism. In Erik Barnouw et al. (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Vol. 4)*. (pp. 230-23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lotch, H., & Lester, M. (1974). Accidents, scandals, and routines: resources for insurgent methodology. In G. Tuchman (Ed.), *The TV establishment: Programming for power and profit* (pp. 53-65).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Brien, C. (1977). Liberty and terror: Illusions of violence, delusions of liberation, *Encounter*, 49(4): 34-41.
- Palertz, D., & Schmid, A. (Eds.). (1992). *Terrorism and the media*. London: Sage.
- Picard, R. G. (1990). News coverage as the contagion of terrorism: Dangerous charges backed by dubious science. In Doris Graber (Eds.), *Media power in politics (2nd Ed)* (pp. 313-323).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Rutenberg, J., & Carter, B. (2001, October 22). Rivals criticize CNN methods of war reporting. *The New York Times*.
- Schlesinger, P. (1991). *Media, state and nation: Political violence and collective*

- identities*. London: Sage.
- Schlesinger, P., Murdock, G., & Elliott, P. (1983). *Televising terrorism: Political violence in popular culture*. London: Comedia.
- Schmid, A. P., & de Graaf, J. (1982). *Violence as communication: Insurgent terrorism and the Western news media*. London: Sage.
- Shrivastava, K. M. (1996). Terrorism related problem of Indian media. In D. L. Paletz (Ed.), *Political communication in action: States, institutions, movements, audiences* (pp. 223-245). Cresskill, NJ: Hampton Press.
- Straus, T. (2001, December 10). The war for public opinion. AlterNet.org.
- Wilkinson, P. (1977).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London: Macmillan.
- Wilson, J. (1996). *Understanding journalism: A guide to issue*. London: Routledge.

(최초투고 2002. 3. 20, 최종논문 제출 2002. 10. 8)

A Critical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rrorism and the Media

With Special Reference to 9 · 11 Terror and the American Media

Hyo-Seong Le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It is popular belief among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ir apologists that media coverage of terrorism promotes terrorism and is used as publicity by terrorists. Generally speaking, however, in reporting terrorism, the media become not terrorists' but state's means of publicity, and condemn terrorism, while rationalizing state's violence against terrorism. Terrorists may be successful in attracting public attention at the initial stage of terrorism, but usually fail in publicizing their cause. This fact notwithstanding,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ir apologists maintain that media coverage of terrorism should be controlled, because it works as publicity for terrorists. Now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n intention to control the media when it is asserted that media coverage of terrorism works as publicity for terrorists. To present these argu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ws values and publicity aspect of terrorism, reviews some problems of and misunderstanding about media coverage of terrorism, and for illustrations, look into the American media's coverage of the 9-11 terrorism against the U. S. and "war on terror", that is, state terrorism taken as a countermeasure to it by the U. S.

Keywords: terror, terrorism, publicity, reports, control, journalism